

“내년 포괄적 FTA 체결·원전개발 협력”

朴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

“北 핵보유 용인못해… 책임있는 일원돼야”

베트남은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수도 하노이의 주석궁에서 쪼영 땐 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내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체택했다.

두 정상은 이날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 양국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데 합의하면서 정치·안보와 경제·통상, 국제부대 등 제반분야의 협력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두 정상은 2009년 수립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기일총 증진시키기로 했으며 양자 차원의 문제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FTA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으며 지난 5월 2차 협상의 탄력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10월 3차 협상을 개최하는 등 연내 2차례 추가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또 두 정상은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게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베트남에서의 원전개발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달러 달성을 ▲용암 석유비축사업과 베트남 남북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 ▲2012년 만료된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재개 노력 ▲금융협력 기반 강화 ▲농업분야의 포괄적 협력 양

해각서 체결 추진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추진 등 항후 추진할 세부 경제협력 방안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 측의 이번 환대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편리한 시기에 쪼영 땐 상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다.

박 대통령은 10월 1800여 우리기업과 7만여 교민사회에 거점인 호찌민 시로 이동해 당시 면담 및 오찬 행사를 하고 현지의 우리기업을 방문하는 등 ‘세일즈외교’에 주력하는 한편 동포 만찬 간담회 일정을 마친 뒤 11일 7·8일의 해외순방 일정을 끝내고 귀국길에 오른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경남랜드 마크 72호텔에서 열린 한복·아오자이 패션쇼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활짝 웃고 있다.

지방 정가

김보현, 도시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통과

김보현(무·서구 2)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일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연교류·생태관찰·문화체험·공원안내자·양성 등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운영

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민간 수탁자의 자격기준도 해당 공원을 중심으로 2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추가, 공원관리에 민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홍인화·이춘문, 인재양성 교육 조례 발의

홍인화(민주·북구 4·사진 왼쪽)·이춘문(무·서구·오른쪽) 광주시의원은 9일 광주시가 지역인재 양성차원을 위해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광주시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사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문화예술교육, 영재교육, 직업교육 활성

화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그 결과를 추후 지원사업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서정성 “광주 수산물센터 방사능 측정 안전”

서정성(민주·남구 2) 광주시의회 예결위원장은 9일 “최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광주농수산물센터 등에서 유통되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수치를 측정했으나 규정치 미만의 극소량만 검출돼 광주지역 수산물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또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조

사한 결과를 해 광주지역에서는 19개 나라에서 수입한 각종 수산물 640톤이 유통됐지만, 이 가운데 명태와 대구 등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전체 유통량의 1.9%인 29톤이 유통됐고, 9월에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는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권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소병래·배승철 전북도의회 부의장, 임명규 전남도의회 부의장,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 조호원 광주시의회 의장, 김재우 전남도의회 의장, 나종천·송경중 광주시의회 부의장, 송주호 전남도의회 부의장.

“정부, 호남권 주요 정책·현안 적극 지원을”

호남 광역의회 의장단협 촉구

광주·전남·전북 광역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는 9일 호남권 주요 지역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들어 호남권 인사 출대, 호남 비하와 지역감정조장,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논란, 대선공약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지원 촉구 등 다양한 호남 차별과 고립화 증후로 인해 지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더 이상 호남 출대와 소외를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의장단 협의회는 또한, “정부 출범 시 장·차관급, 외장장 56명 중 호남출신은 단 7명뿐이고, 5대 권력기관장 중 호남출신은 전무했다”며 “또한 고위공무원 중 호남출신은 3.86%에 불과해 박 대통령이 주장해온 인사대통령, 국민대통합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는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 의장·부의장 등으로 지난 2010년 11월 발족, 지역 공동협력 사항을 논의해 왔다./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호남인의 정치적 소외감이 해소되고, 국민대통합선언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법원 위탁운영 계획 철회, 여수세계박람회 효율적 사후 활용,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정부대책 수립,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국립의산박물관 신축 승계 등을 촉구했다.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는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 의장·부의장 등으로 지난 2010년 11월 발족, 지역 공동협력 사항을 논의해 왔다./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광두 원장 ‘한국형 창조경제의 길’ 출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인 ‘창조경제’의 전도사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창조경제의 토착화 방안을 밝힌 대답집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출판 자회사 FKI미디어가 김광두 원장이 창조경제를 향토화로 나눈 대답을 엮은 책 ‘한국형 창조경제의 길-Creative Korea’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창조경제의 한국적 변용을 통해 창조경제가 한국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룬 책이다.

이 책에서 김 원장은 “우리의 창조경제는 이 용어를 처음 주창한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

의 것과는 달라야 한다”며 “문화와 예술 등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된 창조 경제가 아닌 전 사업 분야로 확장해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창조경제의 주축인 지식 기반의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최초 콘텐츠 개발력, 사업 추진력과 함께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의 강점, 즉 시장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김 원장은 조언한다.

사에 박기정(71)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등 이북5도 가운데 3도 지사를 내정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북5도지사는 정무직 차관급으로 정해진 일기는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평남·평북·함북지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평안남도지사에 백남진(75) 전 평남지사, 평북지사에 백구섭(74) 민주평통 이북5도지역협의회 부의장, 함경북도지

계, 시민사회, 정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정 수료자 전원에게는 수료증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임내현)은 “최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광주농수산물센터 등에서 유통되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수치를 측정했으나 규정치 미만의 극소량만 검출돼 광주지역 수산물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광주지역 2014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역량 강화 및 호남의 정치력 복원은 물론 2014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총 5주, 1일 2 강좌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 강사로는 학계와 언론

지도, 민족화운동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정 수료자 전원에게는 수료증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임내현)은 “이번에 운영되는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소양, 직책 수행능력, 전문성 교육을 통한 참신한 정치인들의 등용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및 관심 있는 당원은 광주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5천(보증금 8천, 월 80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보증금 8천, 월 430만)
- 예식장건물 65억(병원, 교회 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인근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창고, 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펜션, 귀농지, 전원주택용지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대 660㎡, 신축주택 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 요양병원, 관광농원 적합)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비단전망, 전원주택, 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용 4.5억 포함)

광주, 전남권 매도·매수 상담, 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